

선교중심 기독교 대학의 교양영어 개선 방안 연구:
원어민 교수의 인식 조사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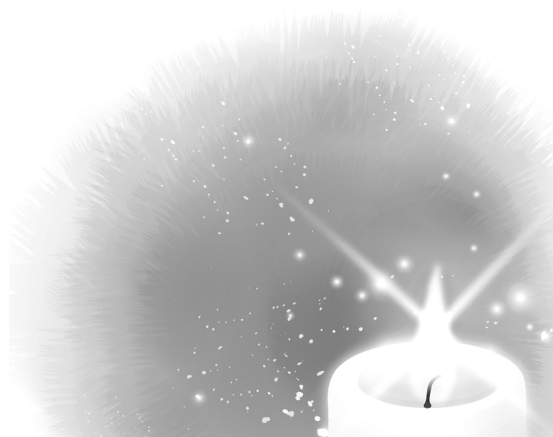
*An Innovation of General English Education of a
Mission-Oriented University: Native Speaking
Professors' Perception*

차재국

고신대학교 교수

목 차

- I. 서론 | 299
- II. 선행 연구 | 302
- III. 연구 결과 | 307
- IV. 결론 및 제언 | 318



요약

선교중심 기독교 대학의 교양영어 개선 방안 연구: 원어민 교수의 인식 조사를 중심으로

본 논문은 현재 선교중심대학을 지향하는 고신대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양영어교육에 관하여 특히 외국인 교수들의 관점에서 고찰함을 목적으로 한다. 21세기에 우리나라 대학에서 시행중인 대학 교양영어는 문법 번역식 독해 위주에서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으로의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마다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하여 많은 원어민교수 채용들을 채용하고 있다. 타 문화권에서 교육을 받은 원어민교수들이 우리나라 대학의 교양영어 수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글로벌적인 교양영어 수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의 결과에 의하면 원어민교수들은 학급의 크기를 25-30명 규모로 축소해야 하며,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학급을 편성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현행 교과서 역시 선교지향적인 기독교

대학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새로운 교과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본 연구는 2011년 고신대학교 교내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An Innovation of General
English Education of a
Mission-Oriented University:
Native Speaking Professors'
Perception*

주요어

대학영어, 원어민 교수, 인식, 교과서

Abstract

An Innovation of General English Education of a Mission-Oriented University: Native Speaking Professors' Perception

Prof. Dr. Jae-Guk Cha

This paper aims to study the current status quo of the English education provided at Korean universities, in terms of native-speaking professors' and instructors' perceptions. Korean universities in the twenty-first century have been witnessing an abrupt switch in the teaching methodology from Reading with translation or Grammar Translation Method to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They, therefore, feel the strong desire to employ native-speaking professors in the fields of foreign languages (especially the English language in the Korean social situation) to enhance students' communicative proficiency. In this study, a university located in Busan was chosen as a subject where the current researcher taught English with native-speaking professors for several years and has felt that some new ideas or perspectives should be implemented in the education of college English (i.e., Global English Conversation in the case of this study) at that specific univers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native-speaking professors urge some changes in the areas of classroom division, class-sizes, the choice of textbooks, and setting clear teaching goals for the betterment of college English education. They suggest that 25-35 students should be put in one classroom by the levels of their proficiency, and not group by academic major, which is used at present. They also propose that currently used textbooks are not suitable for Christian students. These should be changed to more up-to-date ones based upon a Christian World View.

Keywords | College English, Native professors,
Perception, Textbooks

I. 서론

우리나라 대학들의 교양영어교육이 과거의 한국인 교수의 번역과 함께 진행 되는 강독(reading with translation) 위주의 수업 방식에서 탈피하여 회화 및 실용영어 중심의 의사소통언어교수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서 대학 마다 영어권 원어민 교수들의 채용이 해마다 그 수를 더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가 1980년대 초반부터 시행한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에 영향을 입었으며, 아울러 우리나라 대학들이 1990년부터 전개해온 해외 대학들과의 활발한 교류에도 강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00년대에는 국제화 시대를 넘어 글로벌 시대에 직면하면서 우리나라 대학들도 세계 대학과 경쟁 또는 교류해야 하는 과제 앞에 원어민 교수 채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국내 213개 4년제 대학 중 외국인 전임교원(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의 수가 2012년 3월 현재 총4,409명으로 외국인 교수가 가장 많은 대학은 200명가량이며, 100명 이상인 대학이 8개 대학이나 되며 전국적으로 원어민 교수를 10명 이상 채용하지 않은 대학이 거의 없을 정도로 외국인 교수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다(표1 참조).

표 1. 원어민 교원 100명 이상 대학

대학교 명 (가나다 순)	남자	여자	합계
경희대학교	99	32	131
고려대학교	101	27	128
성균관대학교	96	23	119
우송대학교	102	47	149

대학교 명 (가나다 순)	남자	여자	합계
인하대학교	71	29	100
한국외국어대학교	125	64	189
한양대학교	111	32	143
홍익대학교	115	85	200

이처럼 외국인 전임교원을 우리나라 대학에서 다수 채용하는 이유는 교양 과목에 외국어 회화 강좌를 대폭 늘임으로써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시키는 동시에 그들의 사고(思考)와 문화적 지평을 글로벌 화 하여 세계무대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이다. 특히 대학 1학년 교양 영어 과정에서부터 원어민과의 대화나 토론 수업, 그리고 학습자 중심의 실용영어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영어 능력 향상과 더불어 그들의 국제적인 감각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 타 문화와 타민족에 대한 관심도 증폭 등에 교양영어 교육의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진지현(2002)은 세계화 정보화 시대가 대학 영어의 방향을 실제적인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의사소통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실용영어 중심으로 전환하여 개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원어민 교사가 목표어 구사력과 실제적인 언어의 사용과 교수법의 사용에 있어서 내국인 교사 보다 더 뛰어나다고 제창하는 Medgyes(2001)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따라서 원어민 교사는 유창성, 의미, 언어사용, 구두 언어, 언어사용상황, 소집단 활동 선호, 학습자 오류에 대한 관용 등의 교수 초점(teaching focus)과 문화 지도 등의 측면에서 한국인 교사 보다 우수하다고 하였다.

박소란(2008)은 언어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Hymes(1971)의 개념을 소개하고 있는 바, 의사소통이란 언어 능력 이외에도 언어의 실행 가능성과 적합성, 실용성을 고려한 언어 사용 능력을 포함한 보다 광의의 개념이라고 제안 하였다.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습자는 이러한 지식을 사용하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만 실제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습득하게 된다. 또한 이것이 실제와 유사하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더욱이 영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 학습자에게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 즉 원어민과의 접촉 기회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현재 지니고 있는 많은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바람직한 환경을 조성해 준다면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박소란, 2008. p5)

위의 인용문에서 명시하듯이 의사소통능력 함양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 중 하나는 원어민과의 접촉을 통한 지속적인 연습과 훈련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원어민 교수의 수업이 한국인 교수의 수업에 비하여 반드시 우수하다고 단정 짓기란 쉽지 않다. 학습 상황과 지리적 환경과 학생의 수준 및 동기 정도에 따라서 또는 교수의 강의 방법에 따라서 결과는 판이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통하여 먼저, 우리나라 학교에서 외국어를 가르치는 원어민 교수나 교사들의 수업의 질과 효과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수업에 임할 때 가지는 신념이나 한국 학생들이 가진 수업에 대한 태도 및 동기 등에 대하여 느낀 생각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하며,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세계 선교를 지향하는 기독교 대학인 고신대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원어민 교수들이 교양영어를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조사하여 현재 시행중인 교양영어의 제반 문제점들을 원어민의 관점에서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원어민 교수들이 진행하고 운영하는 수업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원어민 교수들이 경험하고 느끼는 고신대학교의 교양영어 교육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여 그들의 관점에서 발견되는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 문제점을

보완하고 교양영어교육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데 있다.

II. 선행 연구

1. 원어민 수업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대학의 교양영어를 지도하는 원어민 교수와 관련된 연구는 이미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여 어느 정도는 그 결과가 밝혀져 있다. 김인옥(2008)의 연구에 따르면, 원어민 교사의 수업에서 얻는 유익은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영어 학습에 더 큰 흥미와 자신감을 준다고 하였다. 전지현(2002)은 서울의 어느 대학 인문, 사회계열 학과에서 개설된 한국인 교수와 원어민 교수의 영어 강의를 학생들이 평가한 결과를 분석하여, 원어민 교수가 한국인 교수에 비해 가르치는 학습량이 더 많으며, 학생들의 학습에 대하여 보다 높은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박지영(2011)은 대학영어회화에서 원어민 교수가 강의할 경우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긍정적 효과는 목표언어인 영어에 대한 노출을 증가시킬 수 있고, 원어민으로부터 영어를 직접 배우므로 학습동기를 높일 수 있고, 원어민으로부터 영어권 문화를 습득할 기회를 갖게 된다는 점이다. 그 외에도 원어민과 접촉할 때 유발 될 수 있는 심리적 불안감을 덜어 줄 수 있으며, 따라서 영어말하기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원어민 교수에게서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은 영어의 정확성보다는 유창성을 자연스럽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반면에 부정적 효과는, 원어민 교수와 학습자 간에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학습자의 성격에 따라서는 오히려 말하는데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될 우려도 있으며, 깊이 있고 폭 넓은 지식을 습득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그리고 원어민 교수의 개인적 수준이나 성향에 따라서는 영어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자질이 결여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경미란(2003)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원어민 교사의 수업이 학습자의 듣기, 말하기 능력 신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수희(2006)는 한국인 교수 보다는 원어민 교수에게서 배운 영어를 다른 외국인에게 더욱 자신감 있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 외에도 고은하(2000), 임지인(1996), 박용주(1998) 등의 조사에 의하면, 원어민 수업을 통해 직접 원어민과 대화를 하는 연습을 함으로서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화자(2001)의 연구에서도 학생들은 원어민 회화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다양한 영어기능 중에서 듣기와 정서적 요인(자신감, 불안감 해소 등)을 가장 향상된 영역으로 선정하였다. 원어민 강사들은 다양한 수업활동을 전개하여 학생들을 흥미 있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게 하였으며, 평가방식과 과제 제시 방식에서 개인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상위권 학생들일수록 원어민 강사의 수업에 대한 열성, 준비도, 인성에 의해 수업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조사 되었다. 그러나 원어민 강사들은 학생들의 불충분한 문법지식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문법지식의 신장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교양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한국인 강사보다는 원어민 강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나온진(1997)의 조사에서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반면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순복(1998)의 연구에서는 원어민과 비 원어민 교사의 교육적 효과를 비교해 본 결과 원어민 교사에 비해 한국인 영어교사의 교육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어민 교사의 수업의 질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고교 교육과정이 대학 입시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비 원어민

즉, 한국인 교사에 의한 수업이 더욱 큰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판단된다.

노승빈(2006)은 경기도에 소재한 어느 대학교의 교양영어 수강생 238명을 대상으로 원어민 교수의 강의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수강생들은 원어민 교수들에게서 듣기와 말하기 즉, 구어체 영어를 배우는데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대답하였다. 특히 내용 중심 교수법(content-based teaching)을 통하여 영어권 나라들의 문화, 경제, 사회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고 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문화와 영어권의 문화를 비교하고 대조하는 방식으로 목표 문화를 소개함으로써 쉽게 타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원어민 교수들의 강의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은, 원어민 교수들이 강의를 진행해 가면서 학생들이 얼마나 그 강의를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원어민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목적과 목표를 제시해 주며, 강의를 끝날 때는 강의 내용을 요약하여주면 좋겠다고 대답 하였다.

2. 원어민 교수의 의견에 관한 연구

이상에서 원어민 교사/교수의 강의의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으며, 이제 원어민 교사/교수들이 수업에 임하는 신념과 현재 우리나라 학교에서 제공되는 영어 학습에 관하여 느끼는 바를 연구한 선행조사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자 한다.

정난희(2009)는 지방의 한 대학에서 강의하는 13명의 원어민 교수들의 신념에 대한 연구에서 학생 중심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영어를 지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 중심의 강의식 설명 보다는 두 사람 이상의 학습자 간의 집단 활동을 통해 학습자 간의 상호교류가 더 효과적이며, 정확성 보다는 유창성에 더 중점을 두어 교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구조 보다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여긴다고 응답 하여, 문법은 독립된 문법 항목들을 설명하기 보다는 유의미한 문맥을 활용하여 의사소통 방법으로 교수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 외에도 원어민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영어 학습에 관한 느낌을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겠다.

서울의 모 대학에서 영어를 강의하는 원어민 교수(Prof. J. P.)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강의를 듣는 태도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교수의 강의에 소극적인 태도로 피드백을 보이며, 질문에 대하여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는 것으로 답하였다. 반면에 말하기가 아닌 쓰기(writing) 강의에서는 과제물작성(essay-writing)에 탁월한 실력을 보여 주었다고 답하였다.

다른 원어민 교수(Prof. S. M. A.)는 ‘문화(culture)’ 과목 수업이 ‘대학영어’ 과목을 가르칠 때 보다 학생들의 영어 실력에 훨씬 도움을 주는 것을 발견하였다. 영어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도 문화 수업을 통하여 영미권의 결혼제도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정치제도와 같은 주제로 토론하다 보면 영어실력이 빨리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여행이 영어 공부에 최고라고 말하는 원어민 교수(Prof. C. H.)도 있다. 공부만으로는 획기적으로 향상되지 않던 소통 능력이 여행 후에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영어권을 여행하면 영어 공부에 대한 동기를 강하게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원어민 교수(Prof. I. D. N.)는 우리나라처럼 단일 문화권 학생들에게 있어서 다른 나라의 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의 연극 같은 행위이므로, 대학영어 시간에도 꼭 연극을 준비한다고 한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야 다른 나라 말을 용기 있게 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이 맡은 사람의 역을 연기하고 나면(role-playing) 영어를 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자아를 갖게 되어 영어 실력이 한층 느는 것은 당연한 일로 완벽하지 않은 영어로도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만 있는 학생이라면, 한 학기 만에 영어 잘하는 학생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한다.

존 홀스타인 교수는 한국대학생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태도를 스스로 공부하려는 의욕이 결여되어있고, 전적으로 가르치는 교수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다음과 같이 꾸밈없이 직설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일부 학생은 *native speaker*가 진행하는 *free talking*같은 수업만 들으면 자신의 영어 실력에 도움이 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다. 만일 *native speaker*가 진행하는 *free talking* 수업을 듣는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은 그 수업이 진행되기에 앞서서 미리 여러 가지 표현을 혼자 공부하고 준비해야 그 수업이 효과가 있다. 오직 그 수업시간에만 의존해서 회화 실력이 늘기를 바라니 원하는 만큼 실력 향상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 회화의 경우라도 *native speaker*가 반드시 옆에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언어 습득에 장애가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누군가가 나에게 언어를 가르쳐주겠지 하고 기대하는 것이다. 좋은 선생님이라면 많은 양의 정보를 주입하지 않는다. 스스로 배우는 방법을 가르쳐줄 뿐이다. 언어 습득은 적극적인 참여를 요한다. 그러나 많은 한국 학생이 소극적이고 최소한의 참여에 만족해 버리고 만다. 다른 사람이 지식을 머리에 집어넣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 그런 지식은 오래 가지 않을 것이고 마음대로 써먹을 수도 없다. (서울대뉴스, 2011. 8. 24 자)

원어민 교수들은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영어 학습에 대하여 스스로 독립적으로 공부하기 보다는 오히려 가르치는 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 오랜 동안 우리나라 학생들이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에 의한 문법-번역식 교수법에 익숙한 탓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 중심의 주입식 영어교육으로 말미암아 학생들은 소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며, 스스로 학습하는 법을 체득하지 못한 결과이다. 따라서 학습자 중심의 상호작용적인 의사소통교수법에 적응하는 데는 원어민들의 역할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Ⅲ. 연구 결과

1. 조사 대상

본 연구는 글로벌대학을 지향하며 세계 선교 중심대학인 고신대학교에서 교양영어를 지도하는 원어민 교수들의 인식도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를 기술하고자 한다.

고신대학교는 1학년 교양필수 과정인 『글로벌영어회화』 I, II 과목을 원어민 교수들이 강의를 하고 있으며, 역시 교양필수 과정에 『글로벌영어』 I, II과목을 두어 한국인 교수들이 강의를 하고 있다(표 2 참조). 따라서 1학년 교양영어 과목의 주당 시수가 총 4시간으로 두 학기를 공부하게 된다. 원어민 교수들이 가르치는 과목은 영어회화 즉, 구어체 중심의 영어를 배움과 동시에 영어권의 문화를 습득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반면에 한국어 교수들이 가르치는 영어 과목(글로벌영어)은 종전의 대학영어처럼 독해 중심의 영어를 제공하게 된다.

표 2. 교양영어 과목 및 담당 교수의 국적

과목명	학 점 수	교 수
글로벌 영어 I	2	한국인 교수
글로벌 영어 II	2	한국인 교수
글로벌 영어 회화 I	2	원어민 교수
글로벌 영어 회화II	2	원어민 교수

2학년부터는 학과 마다 ESP(English for Special Purposes: 특수 목적 영어)의 이론 원리에 따라서 전공 영어를 배우게 되며, 학과에 따라서 명칭이 다양하게 붙여져 있는 바, 이를 테면, 선교영어, 신학영어, 생물영어, 유아영어, 간호영어, 의학영어, 전산영어 등으로 되어 있다.

이미 앞서 밝힌 바대로, 본 연구에서는 범위를 축소하여 『글로벌영어회화』 I, II 과목을 지도하는 원어민 교수들에 한정하여 설문지를 통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대학에서 가르치는 원어민 교수들의 인적 사항에 관한 것은 표[3]과 같다. 표[3]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 출신 원어민 교수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캐나다와 뉴질랜드, 영국, 필리핀, 남아공 순으로 매우 다양한 나라에서 온 15명의 원어민 교수들이 본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서 영어는 세계어로서 자리 매김 하면서 국가나 지역 또는 인종에 따라서 각기 독특한 억양과 발음을 지니고 발전해 가고 있다 (Kachru, 1985, Crystal, 2003).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 대학교는 영어권 6개국에서 온 원어민 교수들을 채용함으로써 다양한 색채를 띤 세계 영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효과를

표 3. 원어민 교수 인적 사항

성명(initials)	성별	국적	소속학과(과목)
A. K.	여	미국	식품영양학과(교양영어)
P. S.	남	영국	국제문화선교학과(전공영어)
A. E.	여	뉴질랜드	영문과(교양영어)
J. P.	여	캐나다	영문과(교양영어)
E. P.	남	미국	영문과(교양영어)
A. D.	남	미국	영문과(교양영어)
L. R.	남	미국	영문과(교양영어)
N. K.	여	미국	영문과(교양영어)
S. M.	여	필리핀	영문과(교양영어/전공영어)
J. N.	여	중국	중국어과(전공 중국어)
M. K.	남	미국	선교목회대학원(전공과목)
W. P.	남	캐나다	선교목회대학원(전공과목)
R. E.	남	뉴질랜드	선교목회대학원(전공과목)
D. O.	여	남아공	선교목회대학원(전공과목)
P. Y.	남	미국	기독교 교육학과(전공과목)

언고 있으며 남녀 교수의 비율도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문화선교학과의 경우에는 영국 런던 출신의 선교사이며 TESOL 전공자를 교수로 채용함으로써 학과의 정체성에 부합한 영어강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문과의 경우에는 주로 미국 자매대학이며 기독교 대학인 Dordt 대학의 졸업생 가운데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이 대학의 원어민 교수로 파견하기 때문에 대부분 젊은 교수들로서 학생들과 세대 차 없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영어회화와 미국 문화 전수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필리핀 자매 대학인 카가얀 주립대학(Cagayan State University)의 영문학과 교수출신이 영문학과에서 전공과목을 영어로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중국학과에서도 중국 원어민 교수를 채용하여 영어로 강의를 하고 있다.

선교목회대학원에서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M. Div.(Master of Divinity: 목회 학 석사)과정을 개설하여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남아공 등에서 우수한 (대다수 박사학위 소지자) 교수들을 초빙하여 신학, 선교 학, 기독교세계관 등을 영어로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선교목회대학원에서 강의하는 교수 중에서 대표적인 두 교수를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Dr. Richard Edlin은 현재 본교 전임교수로 일하면서 호주 세계 각국의 기독교 교육 공동체를 섬기고자 설립된 단체인 Edserv International의 디렉터로 일해 오고 있다. 이에 앞서 10년 동안, 그는 기독교사를 위한 대학원인 호주국립기독교교육 연구소(NICE)의 원장으로 섬겨 왔으며 원격 교육을 통해 전 세계 수많은 교사들에게 교육학 강의를 하고 있다. 그는 특별히 철학, 문화적 감수성 훈련, 교사 전문성 계발 전략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 그는 개혁주의를 바탕으로 한 비판적 사실주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 나라들의 협력적 교사 교육 특히, 교사 교육자들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사역에 헌신하고 있어 본교의 기독교 교육학과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Dr. Mark Kreitzer는 미국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RTS)에서 선교학을 전공(선교학 박사/철학박사) 한 후에 다년간 RTS에서 강의하다가 본교에 초빙되어 현재 MDiv과정의 director로 일하고 있으며, 그의 부인 Nancy Kreitzer도 RTS에서 선교학을 전공하여 본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로는 본 대학교에서 교양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8명의 원어민 교수들을 선정하였다. 이들은 다년간 본 대학에서 교양영어를 지도하여 온 자들로서 본 연구의 대상자로 가장 적합한 인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2. 조사 방법

조사 방법은 설문지를 사용하기로 하고, 10개의 closed-ended questions(폐쇄형 질문)과 1개의 open-ended questions(개방형 질문)을 만들어 8명의 교양영어 담당 원어민 교수들에게 나누어 주고 1주일 이내에 다시 회수한 결과 6명으로부터 회신을 받았다. 인터뷰나 온라인(이 메일, 스마트 폰 문자 등)을 이용한 조사 방법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장 전통적이며 정확한 questionnaire sheets(설문지)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인터뷰는 질문자와 응답자 간에 시간을 정하여 만나야 하므로 시간 약속이 용이하지 않으며, 얼굴을 마주보고 질의와 응답을 할 경우 조사자의 면전에서 응답자가 다소 과장되거나 솔직하지 못한 대답을 할 우려가 있어 신뢰도가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했다. 온라인이나 문자를 통한 방법이 가장 편리한 수단일 수 있지만, 이 역시 paper 보다는 screen을 통하기 때문에 응답자가 불편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방법 역시 피하기로 하였다.

3. 결과 분석

위의 표에서 교양영어를 담당하는 8명의 교수들에게 교양영어 수업에 대한 설문지를 나누어 주어 의견을 표현하게 하였는바 6명이 회답을 보내왔으며 10개의 폐쇄형 질문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원어민 교수의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 도에 대하여는 [표 4]에 나타난 바대로, 만족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원어민 교수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수의 수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원어민 수업에 처음에는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원어민의 영어를 알아듣지 못하거나 영어실력이 상승되지 않을 경우 점차 흥미 도를 상실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표 4. 원어민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도

1. 모든 학생들이 내 수업에 흥미를 느낀다고 생각한다.	
매우 그렇다	1
그렇다	1
잘 모르겠다	2
그렇지 않다	2
매우 그렇지 않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원어민 수업에 열심과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가라는 질문에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의하는 쪽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교양영어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목으로 취급하는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성의 있게 수업을 듣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물론 수업의 질이나 학생의 수준에 따라 다르긴 하나 대체로 65% 정도는 영어에 대한 매우 강한 동기를 가진 학생들로 인식되고 있다고 답하였다. 이는 질문 1에서와 같이 처음에는 원어민 수업에 대하여 강한 동기를 지녔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외국인에 대한 신비감이 감소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 원어민 교수는 학생들의 학습 동기가 점점 희석되는 이유를 반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테면, 현재 영어 능력을 무시한 채 학과 별로 클래스가 나뉘어 저 있어서 여러 수준의 학생들이 함께 섞여서 수업을 하므로 인하여 영어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이 자신의 실력보다 낮은 수준의 수업을 들으면서 학습 동기가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 그 교수는 학과별 반 편성을 지양하고 학생의 영어 수준별로 전환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표 5. 원어민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열성도

2. 학생들이 수업에 (강한 동기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참여한다고 생각한다.	
매우 그렇다	1
그렇다	3
잘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2
매우 그렇지 않다	

원어민 교수들은 자신의 강의에 즐거움과 희열을 느낀다고 답하였다. 이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원어민 교수들은 기독교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토대로 교육을 하므로 인하여 학생들을 지도하고 학습하는 데 많은 보람과 기쁨을 맛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이 대학교의 설립 이념의 관점에 볼 때 원어민 교수의 채용에 있어서 매우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6. 원어민 교수의 수업에 대한 자기만족도

3. 한국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재미있다.	
매우 그렇다	4
그렇다	2
잘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들의 수업 분위기는 영어 교육을 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클래스에 학생 수가 너무 많은 것을 제외하면 강의실 환경과 학생들의 수업 태도가 영어 학습에 적절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답하였다. 기독교 대학의 학생들은 교수에 대하여 예절과 품위를 갖추고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을 잊 볼 수 있다.

표 7. 교실 환경에 대한 의견

4. 수업환경(또는 분위기)이 영어교육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2
잘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교수의 질문에 답을 적절하게 잘 하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국인 교수에 대한 공포감이나 어색함이 없이 적극적으로 대화를 함으로써 외국어 실력이 향상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이는 외국어 교수법 가운데 정의적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바람직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학생 개인의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답하는 원어민 교수도 있다.

표 8. 학생들의 표현 능력

5.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대화) 참여하였다.	
매우 그렇다	1
그렇다	4
잘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원어민 교양영어에 사용되는 교과서가 한국 학생들에게 영어회화를 가르치기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 참조). 현재 사용 중인 교과서는 up-to-date하지 못하며, 원어민 교수들이 가르치기에는 현장감이 떨어지고, 영미권의 문화를 소개하는 내용이 배제되어 있으며, DVD 등과 같은 시각적 보조 자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독교 대학인 이 대학의 학생들에게 기독교적 정서와 세계관을 심어주기에 부족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그래서 2012년 1학기부터 새로운 교재를 선정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므로 이 문제는 해결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새로운 교재의 선택은 원어민 교수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에 결정한 것으로 매우 이성적인 교재를 선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9. 교재의 적합성

6. 수업 교재가 기독교 대학에서 영어회화를 가르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1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지 않다	

원어민 교수들은 자신들의 수업을 잘 관리하며 운영하는 것으로 답하고 있다(표 10 참조). 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기독교 대학의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교수의 권위에 대하여 매우 순종적이며 예의가 바르기 때문인 것 같다. 특히 외국인들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태도는 정중하며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는 전통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50명이 넘는 클래스는 쉽게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대답이 나왔다.

표 10. 원어민 교수의 학급 운영도

7. 외국인 교수로서 한국 학생들을 다루기가 쉬웠다.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4
잘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원어민 교수들은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동안 학습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언어적 장벽을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한 명의 원어민 교수가 이 문제에 대하여 불확실한 답을 주고 있어 교수에 따라서는 언어적 어려움으로 수업에 다소 지장이 있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도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은 한국어를 어느 정도 배워서 언어적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11. 문화적 장벽

8. 언어 장벽으로 인하여 영어를 가르치고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1
그렇지 않다	3
매우 그렇지 않다	2

우리나라에서 강의하는 원어민 교수들이 문화적 장벽 때문에 수업에 지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명 전원이 전혀 문화 충격이나 갈등으로 영어 교육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고 답했다(표 12 참조). 이는 이들이 한국 문화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글로벌화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하겠다.

표 12. 원어민 교수의 문화적 장벽

9. 나는 문화적 장벽으로 인하여 영어를 가르치고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3
매우 그렇지 않다	3

원어민 교수들은 수업시간에 한 가지 교수법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교수법을 사용하여 수업에 신선도를 높이며, 학생들에게 흥미와 재미를 곁들인 수업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3 참조). 대부분의 영어회화 교수들은 강의 준비를 철저히 하며 각 강의실에 설치된 전자교탁을 잘 활용하여 보조 자료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어민 교수들 가운데 어떤 이는 컴퓨터나 인터넷, DVD, projector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개발한 여러 가지 교수법을 활용하여 좋은 학습 효과를 거두는 예도 있다. 이는 자신이 바로 보조자료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오히려 보조자료 때문에 자신만의 독특한 교수법 활용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여긴다.

표 13. 원어민 교수의 교수법의 다양성

10. 수업시간에 다양한 교수법을 사용하여 영어를 가르치려고 노력했다.	
매우 그렇다	3
그렇다	3
잘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이상에서 논한 10개의 폐쇄형 질문 외에 마지막 1개의 개방형 질문(“Please give any suggestions for the future English programs at the University” 앞으로 본 대학교의 영어 교육 프로그램의 향상을 위하여 도움이 될 만한 제안들을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현행제도의 개선점들을 열거하고 있다.

- * 글로벌 영어회화수업의 목적과 목표가 교수들에게 명확하게 정의되어져야 한다. 즉, 교양 영어의 이해력과 유창성을 증대시키는데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 영어로 대화하는 특수한 기술을 개발시키는 것이냐 하는 것이다. 만약 대화가 목적이라면, 교수들은 학생들의 말하기 연습에 모든 수업을 설계해야 할 수 있을 것이다. (L. R. 교수)

- * 나는 학생들을 전공분야 별로 분반을 하는데 반대한다. 물론 매우 어려운 일이겠지만 학생들을 (영어) 능력별로 반을 나누는 것이 좋다고 여긴다. 현재 상태로서는 몇 몇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 보다 실력이 더 나올 수도 있고 더 나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자기 수준에 맞는 영어를 배우지 못한다. 이번 학기에 내가 가르친 어느 학급은 대체로 수준이 낮고 학습동기도 저조한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중에서 약 5명의 학생들은 영어를 잘하고 많은 것을 배우기를 원했지만 실제로 교수가 다수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 강의를 낮은 수준의 강의를 하다 보니 그들의 실력은 오히려 위축되었다. (A. K. 교수).

- * 글로벌 영어회화의 교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곧 다른 교재로 교체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소되리라 여겨진다. (A. K. 교수).

- * 현재 한 반의 수(약 50명 이상)가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특히 회화에 중점을 두어 수업하기에는 더욱 그렇다. 한 반의 학생이 약 25-35명이 되면 성취도가 높아 질것이다. (A. E. 교수)

- * 한 반의 학생수를 줄이기를 원한다. (E. P. 교수)

- * 학급 규모를 줄이 줄것: 약 30명 내외가 적합하다고 여김! (E. S. 교수)

- * 한국 학생들은 강의식 수업에 더욱 익숙해 있어서 그런지 학생활동 중심 프로그램에 겁을 먹는 것 같다. (A. E. 교수).

이상의 제안들을 요약하자면, 첫째, 교양영어회화과목의 목적을 원어민 교수들에게 분명히 제시하여 줌으로서 그 목표에 적합한 수업을 준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과 둘째는 학생들을 전공별로 반을 편성하지 말고 영어 능력별로 하여 학습 수준을 맞추어 강의함으로써 우수한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높이도록 하여야 하며, 셋째는 현재 사용하는 교재가 회화 수업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속히 교체하여야 하며, 넷째는 학생 수가 너무 과다하여 효과적이며 능률적인 회화 수업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25-35명 선으로 축소시켜 줄 것과,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이 교수의 일방적인 강의를 선호하여 학생활동에 소극적이며 두려움을 느낀다고 한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조사의 대상으로 삼은 본 대학은 기독교 종합대학으로서 코람데오(하나님 앞에서)의 교훈 아래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의 순결을 겸비하여 하나님 나라와 인류사회를 위하여 봉사할 인재를 양성함을 목표로 하고 각 분야에서 기독교 세계관과 바른 인성을 가진 크리스천 인재를 길러내고 있다.

위와 같은 건학 이념의 견지에서 볼 때 본 대학교는 해외 기독교 자매

대학에서 원어민 교수들을 초빙하여 강의케 함으로서 학교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유지해가고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러한 건학 이념이 학문의 모든 영역(글로벌영어회화 분야 포함)에서 얼마나 건실하게 적용되는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본 대학교에서 『글로벌영어회화』 과목을 가르치는 한 원어민 교수는 그가 작성한 강의계획서에서 다음과 같이 과목 개요를 기술하고 있는데, 이 개요만을 살펴본다면 기독교적 세계관을 적용한 흔적인 전혀 보이지 않는다.

* 본 과정은 1학년 전체 학생들이 수강해야 하는 필수 교양영어과목이다. 영어의 기능 중에서 말하기와 듣기를 향상시키고자하는 중하급수준의 영어 능력을 가진 학생들에게 알맞게 짜여져있다. 비록 말하기와 듣기 위주의 수업이지만 읽기와 쓰기 기술도 연습할 것이다. 이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교실 내에서와 외에서 영어 학습을 연습 시간을 할애하여야 한다. 학생들은 동료 학생들과 서로 협력하여 영어 학습을 성취해 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12-1학기 Lee Radde교수의 강의계획서에서 인용).

교양영어를 기독교적 관점과 접목하여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글로벌 영어회화』 과목의 교과서 선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독교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가 하는 문제에 유념하여야 한다. 원어민 교수 6명 중 5명이 현행 교과서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명은 잘 모르겠다고 답하고 있다. 경기도 소재의 어느 대학교의 교양영어운영방안에 관한 김현옥과 이혜경(2010)의 연구에서도 교양영어 강의 교재가 수강생들의 학습 수준에 맞지 않고, 학생들에게 흥미와 재미를 주지 못함으로 인하여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고신대학교 글로벌영어회화(I, II)에서 현재 사용되

는 교과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교재로 대체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2011학년도 1학기에는 *Worldview 2* (Michael Rost, Pearson Education, Inc. 2005)를 사용하였으나 2012학년도 1학기에 사용하는 교재는 Gershon, S. & Mares, C. (2008) 저 *New English upgrade: Student book 2*(Oxford, England: MacMillan)로 변경이 되었다.

두 번째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class size*(학급 규모)인데, 현재 편의상 학과별로 편성이 되어 있어 한 반이 보통 40-50명이나 된다. 대부분의 원어민 교수들은 25-35명 정도가 적합하다고 여기며, 심지어 어떤 교수는 30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결과는 전지현(2002)의 연구에서도 수강생이 20명 이하인 경우가 21명 이상 40명 미만인 경우보다 강의가 전반적으로 좋았다고 평가하였으며, 수강생이 21명 이상 40명 미만인 경우 40명 이상인 경우보다 강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따라서 수강인원이 적을수록 강의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평가 했다. 수강생의 숫자를 20명 이하로 축소할 경우 원어민 교수의 숫자가 늘어나야 하며, 소규모 강의실도 더 증가되어야 하므로 학교 예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Large class*의 문제점은 교수가 수업을 운영하기가 힘이 들며, 따라서 학생들이 교수의 강의에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 개개인의 수준(level)이 판이하기 때문에 교수가 대다수(95%)의 낮은 수준의 학생들에게 맞추어 강의를 하다 보면 수준이 높은 극소수(5%)의 학생들은 강의에 대한 동기와 흥미를 상실하게 되며 학습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 결과적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된다. *Class size* 문제의 해결책은 학과 단위 보다는 수준 단위로 반 편성을 하되 *placement test*(배치고사) 또는 *level test*(수준고사), 대학 입학 수학능력 시험(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영어 점수 등을 통하여 수준이 비슷한 학생 25-30명 정도로 함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끝으로, 원어민 교수들은 자신들의 수업시간에 보조 자료와 여러 가지 교수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어떤 원어민 교수는 멀티미디어를 그렇게 많이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답하였다. 원어민들은 자신이 바로 강의 도구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원어민이기 때문에 **live English**(생생한 영어)를 학생들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이 강의 보조도구(aids)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한국인 교수들이 영어회화 수업에 반드시 보조도구를 사용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어민 교수들로 하여금 보조도구를 사용하게 유도하려면, 영어회화 강의실 마다 멀티미디어 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우리나라 대학에서 가르치는 원어민 교수들의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을 요약한다면,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이 지난 몇 년간 놀라운 진보와 발전을 하여왔으며,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자세와 원어민에 대한 의식이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 영어교육이 다소의 문제점에서 탈피하지 못한 양상이 있으므로 이의 수정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앞으로 이와 관련한 지속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참고 문헌

- 경미란(2003). 원어민 교사를 활용한 수준별 수업이 초등학생 듣기, 말하기 능력 신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전주대학교, 전주.
- 고은하(2009). 원어민 교사를 활용한 영어수업이 학습자의 정의적 요인과 듣기능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서울.
- 김수희(2006). 원어민 교사가 학생들의 언어불안과 모험 시도,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서울. 박지영(2011)에서 재인용.
- 김순복(1998). 원어민과 비 원어민 영어교사의 교육적 효과상의 차이와 그 제안.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3, 87-90.
- 김인옥. (2008). 초등영어교육 발전을 위한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교사의 협동수업 방안. *강원교육* 182호 pp31-35.
- 김현옥, 이해경. (2010). 대학 교양영어 수준별 프로그램 운영방안. *영어교육연구*, 22(4). pp75-100.
- 나은진(1997). 의사소통능력신장을 통한 원어민 보조교사와의 역할 분담식 수업 모델 연구. *영어교육연구*, (62), 165-172. 박지영(2011). 에서 재인용.
- 박소란(2008). 원어민 교사에 대한 한국인 영어교사와 학생들의 태도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학석사학위청구논문.
- 박용주(1998). 원어민 영어교사를 활용한 협동수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광주.
- 박지영(2011). 원어민 대학영어회화 수업에서의 학습자배경, 정의적요인, 말하기 성취도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울대뉴스(2011. 8. 24 자). 대학영어 강사들이 말하는 영어공부법. 서울대학교 홍보팀.
- 이화자(2001). 교양영어 원어민 회화 프로그램의 총괄적 평가.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6(2) 33-67.

- 임지인(1996). *원어민 교사가 학생들의 정의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서울.
- 전지현(2002). 대학 영어 강의에 대한 학습자의 평가. *외국어교육*, 9(4), 233-251.
- 정난희(2009) *대학 내 원어민 영어 교수 자들의 의사소통중심 교수법에 대한 신념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학위 논문.
- Canale, M. & Swain, M. (1980). Theoretical bases of communic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testing. *Applied Linguistics*, 1(1): 1-47.
- Crystal, D. (2003). *English as a global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Kachru, B. (1985) Institutionalized second-language varieties. In S. Greenbaum (Ed.), *The English Language Today*. Oxford: Pergamon, 211-26.
- Medgyes, P. (2001). When the teacher is a non-native speaker. In M. Celce-Murcia (Ed.),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3rd ed.)(pp. 429-442). Boston: Heinle & Heinle.
- Roh, S. (2006). A research on methods for English native-speakers' teaching in Korean EFL classes. *영어어문교육* 12(3). 51-78.
- Radde, L. (2012) the 2012-1 Syllabus at www.kosin.ac.kr 2012년 3월 10일에 검색
- www.kosin.ac.kr에서 2012년 3월 5일에 검색
- www.seoulkamt.or.kr/v2/fileBoard/download.asp?Idx..에서 2012년 2월 5일에 검색

<부록>

Questionnaire on 'Global English Conversation' Classes
Perceived by Native English Speaking Professors

1. I think all students were interested in my lessons.
5) Strongly Agree 4) Agree 3) Not sure 2) Disagree 1) Strongly Disagree

2. I think students were enthusiastic (or highly motivated) in my classes.
5) Strongly Agree 4) Agree 3) Not sure 2) Disagree 1) Strongly Disagree

3. I enjoyed teaching English to Korean students.
5) Strongly Agree 4) Agree 3) Not sure 2) Disagree 1) Strongly Disagree

4. I think class atmosphere was appropriate for the English education.
5) Strongly Agree 4) Agree 3) Not sure 2) Disagree 1) Strongly Disagree

5. Students in my classes talked appropriately (or participated in the class actively).
5) Strongly Agree 4) Agree 3) Not sure 2) Disagree 1) Strongly Disagree

6. I think the books and materials I used in my classes were suitable to teach English conversation to Korean students (especially to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5) Strongly Agree 4) Agree 3) Not sure 2) Disagree 1) Strongly Disagree

7. It was easy for me as a foreign professor to manage classrooms of Korean students.

5) Strongly Agree 4) Agree 3) Not sure 2) Disagree 1) Strongly Disagree

8. I experienced language barrier enough to prevent teaching & learning of English.

5) Strongly Agree 4) Agree 3) Not sure 2) Disagree 1) Strongly Disagree

9. I experienced cultural barrier enough to prevent teaching & learning of English.

5) Strongly Agree 4) Agree 3) Not sure 2) Disagree 1) Strongly Disagree

10. I tried to use a variety of teaching methods in my classes.

5) Strongly Agree 4) Agree 3) Not sure 2) Disagree 1) Strongly Disagree

11. Please give any suggestions for the future English program at the University.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cooperation!

From Jae Guk Cha